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57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음력 1월 21일 | kwangju.co.kr

일제강점 후 111년… 서울~부산 중심 개발에 호남은 '섬'

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1〉 공항·항만·철도 불균형 심화

가덕도신공항 건설되면 부산항·동남권 물류분야 경쟁력 쏠림 가속
호남권 기반시설 계획은 번번이 좌절…신국토균형발전 전략 세워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물류교통의 중심이 부산·울산·경남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부산항, 김해공항에 가덕도신공항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남권의 관문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SOC(기반시설)인 무안국제공항, 광양항의 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수도권, 동남권 등에 크게 뒤쳐져 있는 기반시설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부에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일제강점기 이후 111년간 기반시설은 경부(서울~부산)라인을 중심으로 들어섰다. 일제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과 수도인 서울을 신속하게 잇기 위해 경부선(1905년 개통)이 우리나라 SOC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복선화됐지만, 경부선의 지선 형태로 설치된 호남선(1914년 개통)은 복선화하는데만 90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일의존도가 높았던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며, 경부라인은 한층 굳건해졌다. 이 같은 추세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과 충청권에 더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항, 김해공항을 가진 부산·울산·경남에 가덕도신공항까지 더해지면서 부울경의 물류 분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권역 내 철도망·도로망 등을 신속하게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항이 광양항과 함께 '투 포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원 포트'로서 정부의 절대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의 물동량을 양분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부를 촘촘히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까지 정부 지원으로 구축하게 되면 완벽한 교통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동남권이 서남권까지 아우르는 상황으로의 전개도 예상된다. 광양항이 부산항의, 무안국제공항이 가덕도신공항의 하위에 자리하며 그 보완적인 기능에 멈춰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등 정부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계획 전반에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만이 강조됐을 뿐 국토 서남권인 호남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서남권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근근이 설치 그 자체에 '찔끔' 예산만 지원하는데 반해,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등은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신속한 연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국가불균형 개발의 상징인 경부선이 현 정부에서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경부라인에 자리한 지역에만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집중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호남권의 기반시설 계획들과는 달리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치권,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한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경부를 축으로한 불균형성장전략 추진에 따른 호남 소외가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시정없이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과 신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행안부, 여순사건특별법 반대 입장 철회
법안소위 논의… 20년 만에 결실 기대감

소병철 의원 끈질긴 노력에 "입법 사안" 첫 입장 밝혀

'국가권력이 빚은 시대의 아픔'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토대를 만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3일 행안부 법안소위에서 첫 논의됐다. 특히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이었던 행안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첫 법안 발의 이후 20년만에 빛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행안부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밝힌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인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행안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법 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 발발한 대표적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왜곡된 한국 현대사로 기록돼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정립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131명 인명 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간 의견 충돌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번번히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18·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가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소 의원은 "16대 국회에서부터 네 차례 발의가 됐는데, 이제야 결실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마침내 긴 여정의 끝이 보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땅투기' 국토부·LH 직원 가족 전수 조사 ▶3면
'뇌물' 광주 북구의원·공무원 무더기 송치 ▶6면

KIA 장현식, 마운드 '조커'로 뜬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권역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의성관 5층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광주 전남 사진기자단

"마스크 벗는 날 기대합니다"

조선대병원 의성관에서 호남권 화이자 백신 첫 접종

3일 오전 코로나19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광주 조선대병원 의성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됐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2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먼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지역에선 첫 접종인 탓에 준비하는 의료진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접종에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 직원 10명 등 모두 22명이 투입됐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되다 미리 해동된 백신을 희석제와 섞은 주사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앉아 대기했다. 독감 등 백신 주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 있었던 사람은 30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15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퇴실했다.

광주 1호 접종자가 된 조선대병원 박진영(41) 간호사는 "다른 사람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서 함께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권역 접종센터에선 이날 하루 동안 108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508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호남권 21개 의료기관 4천여명도 조만간 백신을 배분받아 자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 퍼 레 티 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